



지구를 죽이는 전쟁 반대

반전 평화 대중강연회

- 걸프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일시 : 1991년 2월11일 오후 7시

장소 : 기독교 회관 2층 대강당

주최 : 공해추방운동연합, 기독교청년의료인회, 녹색의 전화,
반핵 평화운동회의(가칭) 건설 준비위,
서울시 공해 피해 주민 공동 대책위, 평화연구소,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 반핵 반공해 평화연구소 환경과 공해연구리

후원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보건·의료 단체 반핵 반공해 분과 연대 모임,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

걸프전쟁은 전 지구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걸프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인류대재앙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유전의 파괴는 '핵폭발'에 버금가는 대 참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생태계와 기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전의 파괴로 붙은 불은 1년이상 계속될 것이며 그로인해 인류공동의 재산인 석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페르시아만 일대에 기온이 8-15도 가량 떨어져 많은 사람이 얼어죽게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석유가 타면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는 채 10일도 걸리지 않으며 서울의 공기오염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원유방출로 인한 '죽음의 기름띠'는 페르시아만 연안에 널리 퍼져있는 상태에서 그지역의 생태계 파괴, 바닷새, 바닷거북이의 폐죽음은 물론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등의 식수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6공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의 실패는 걸프전쟁 속에서 더욱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만원을 가지고 시장을 간다"는 말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전쟁지원금 5억불 책정'이니 '소련 경제협력 자금 30억불 책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맬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하며,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희생을 강요하는 파병은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월남전 군파병'이라는 뼈아픈 과거를 통해 군파병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열혈청년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월체에 몸의 의지한채 50대의 인생을 한숨과 고통속에 보내고 있으며, 정신적 불구로 고생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월남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청년들을 또 다른 남의 전쟁터로 내보낸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만을 남겨주게 될것입니다.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군파병과 전쟁자금 지원은 결코 전쟁종결의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걸프전쟁은 아랍민족내의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더이상 우리 청년의 희생이 요구되는 군파병이나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전쟁자금 지원이 아니라 평화적인 제방법을 통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 정

1 부 • 걸프전쟁과 한반도

연사: 이 병 승 (AALA 연구원)

• 걸프전쟁과 전 지구적 재앙

연사: 최 열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

2 부 • 걸프전쟁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